1강 - 세계 영화사 개관

영화의 고고학

세계영화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개괄하겠습니다.

1895년, 최초로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프랑스의 그랑 까페 (Le Grand Cafe)라는 까페에서 '대중 유료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일반적인 정규 극장은 아니고 카페라는 성격의 공간에서 지식인들 위주의 소규모의 대중시사회가 최초의 영화 상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895년'이라는 것은 '대중 유료 상영'이었다는 점에서 시발점이라고 기억할만하지만, 이미 영화의 발명의 역사는 1895년 이전부터 꾸준히 몇 백 년 동안을 내려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영화의 고고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부터 시작을 합니다.

헐리우드 고전양식

1895년, 대중영화—소위 유료상영, 또는 산업의 역사가 시작 되어서, 본격적으로 영화가 탄생되었읍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돼서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대량생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장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상당히 다양해졌고 소위 '헐리우드 고전적 양식'이라 불리는 헐리우드 3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많은 장르 또 스타, 기술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대량생산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는 헐리우드 고전적 영화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대량생산과 표준화된 장르, 스타, 많은 감독들의 영화가 어떤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대중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게 돼지요. 국가는 공황기에 직면하고, 조금씩 경제적 어려움을 재건하려는 어려운 정치 사회적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대중들에게 환심을 사게 되는 대중오락 예술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가난한 대중들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오락 및 예술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양대산맥: 독일 표현주의와 소비에트 몽타쥬

반면, 같은 시기 1920년대에 가장 중요한, 세계영화사조의 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과 독일의 영화사의 경우입니다.

소련은 '소비에트 몽따쥬'라는 이름으로 미학적 지칭을 합니다. 독일은 '독일 표현주의'라는 말로 개념화하게 되죠. '독일 표현주의란 무엇인가?' 또 '소비에트 몽따쥬란 무엇인가?' 하는 것

을 좀 더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거죠.

헐리우드, 소련, 독일이 초창기 영화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1920년대의 독일과 소련, 그리고 미국이 각각 서로 다른 지역적 또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어떠한 문화적인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화사적 내용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소련은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짜르 봉건체제'를 전복시킵니다. 전근대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대격변기를 거치면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정치. 경제적 모델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시기에 봉착을 하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의 영화예술이 꽃피우게 되죠.

독일은 소련과는 달리 사회주의봉기가 실패 합니다. 대신 '국가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나찌즘 파쇼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차 대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의 무정부 상태를 표현하는 심리적인 영화 활동이 1920년대에 유행하게 됩니다. 무정부적인 심리적인 혼란은 이제 1930년대로 밀려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전체주의로 변해갑니다, 강한 카리스마로 획일화하는, 그런 과도기에 정신질환적이고 정신분열적인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1920년대에 등장하는 심리적인 공포영화라든가 또는 SF영화들이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심리적인 영화, 정신병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라든가 괴담류의 영화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심리를 파헤치는 수법이 탁월하기 때문에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 초창기에 러시아, 미국과 더불어서 어깨를 겨눌만한 굵직한 영화사조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조인 실험영화운동도 나타납니다. 유럽은 마치 정치적으로 무정부상태와 혼란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도 안정적이지 않은 혼란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현실주의 보다는 초현실주의고, 사실주의보다는 심리주의, 공상과 상상과 개혁과 이상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사조가 등장하게 되죠. 모더니즘이며 전위주의고 실험주의입니다. 이 사조가 제 1기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은 이때 처음 시작하여 1960년대 2기 모더니즘, 1990년대 이후 3기 모더니즘으로 이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일컫는 것은 고전 시기 이후의 후기 모더니즘인 2, 3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한 혼란의 시기에 나타는 실험적인 모더니즘 영화들이 유럽에서는 유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적 현상은 헐리우드가 대다수 유럽의 흐름과는 완전히 극과극의 현상을 갖게 된 것을 보여주죠. 헐리우드는 재건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라든지, 국가 재건에 맞춰서 영화가 대중적 오락으로 성장하는 추세였습니다. 반면 유럽은 사회적 혼란속에서 진통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수습하려는 반항적이며 저항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실험을 하게 되고, 모더니즘 영화들을 선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소련은 이제 스탈린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앙집권적인 공산주의로 획일화 되어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단순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많은 영화들이 의욕적으로 생산의 박차를 가하게 되지만, 미학적으로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교류하지 않게 되는 고립된 미학을 갖게 됩니다.

헐리우드 고전적 양식과 대안적 국가영화의 성장

헐리우드 고전적 양식은 영화사 전체에 있어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고전적 양식은 1960년대를 전후로 해서 '고전적 양식'과 '현대적 양식'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고전적 양식의 지배적인 형태를 결정짓는 역사적 사건이면서 또한 사조입니다.

헐리우드가 구축되는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19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30년대에 들어와서는 완성기.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전적 양식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TV 라든지 다른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사양화되죠. 1910년대부터 구축되어온 헐리우드 고전적 양식이 이제 다른 형태로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안적 양식. 소위 고전적 양식에 반대되는 그러한 경향들의 다양한 현상들이 각국의 영화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가영화(National Cinema)가 태동하면서 대안적 양식은 자리를 잡아나갑니다. 국가영화는 특히 고전영화와 현대영화 즉 대안적 영화로 양분되면서 나라적 특색을 더욱 강하게 띄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고전영화, 즉 헐리우드 고전적 양식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1960년대 이전까지의 세계영화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었던 헐리우드 고전적 양식의 발전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적 사실주의, 상징주의

1940년대 프랑스에서는 1930년대의 실험적 모더니즘 영화를 이어받은 시적 사실주의 혹은 상징주의 영화들이 나타납니다. 시인이며 감독인 장 콕토(Jean Cocteau)의 <시인 오르페(Orfeu)>, <미녀와 야수(La Belle et La Bête)등의 은유적인 영화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상징주의적인 영화로서 시적 비유가 가득합니다. 또 시적 사실주의라는 것은 문학적이며 은유적인 대사를 사용하거나 연극적인 드라마구조를 통해서 인생자체를 시적으로 비유하는 영화를 말합니다.

사실주의이긴 하지만 문학적으로 품격 있는 영화들입니다. 세팅은 사실주의적이지만 대사나

인물의 행동, 상황이 추상적인 은유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은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시적 사실주의는 그 당시 프랑스에서 대중영화로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장 가뱅(Jean Gabin)이라는 배우가 당시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배우이고, <안개 낀 부두 (Quai des brûmes)>, <망향 (Pépé le Moko)>등 추억의 명화들로 알려져 있지요.

대안적 양식의 서막: 이태리 네오 리얼리즘

194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은 2차대전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결국은 미국도 개입하게 되면서 전세계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태리에서는 아주 독특한 '네오 리얼리즘'이라는 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오'는 '새롭다'는 말이죠. '새로운 리얼리즘(realism)', '새로운 사실주의'라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치 연극이나 종례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기록영화적인 수법의 박진감 있는 사실주의 영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태리의 무솔리니 파쇼정권에 대항해서 싸웠던 레지스탕스 정신을 이어받는 의미도 일부 있습니다. 전세계 영화 사조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사조이면서 이후 전세계 뉴 시네마에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사조죠. <자전거 도둑>이라든지 <대지는 흔들린다> 같은 영화를 기억합니다. <대지는 흔들린다>에서는 배우들조차도 실제 시실리 어부들이 총출동해서 연기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 배우도 일반 거리를 돌아다니는 실업자, 당시 직장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을 실제 캐스팅해서 촬영을 했지요. 또 로케이션촬영을 주로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마치 기록영화를 보는 것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분장을 하고 찍은 것이 아니고, 마치 길거리에서 그냥 카메라를 대고 찍었다는 말입니다. 네오 리얼리즘의 미학은 드라마를 거침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은 사실감을 주는 그런 영화들로 각인되게 됩니다. 1940년대 중반 이후에 이태리 영화는 새로운 사실주의 영화들로 한동안 가득차게 됩니다.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이라는 대중영화도 추억의 명화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오 리얼리즘의 대표작입니다. 당시의 가난과 전후의 폐허를 그대로 담고 있지요. 2차대전 이후 이태리 영화인들이 묘사하는 네오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소재였습니다. 롯셀리니의 <독일영년>, <파이잔> 등이 같은 현실을 그려냈죠.

물론 일부 환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팅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 드라마 자체가 사실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태리의 가난, 전후 피폐한 상황들이 충실히 드러난 것이죠.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원칙대로 네오리얼리즘의 미학은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적어도

이태리에서 약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신사실주의 영화가 휩쓸었습니다.

네오 리얼리즘은 이후 제3세계권으로 영향이 넘어갑니다.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서 네오리얼리즘의 영향하에 제작된 영화들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에 많이 나왔던 리얼리즘 영화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주의적인 태도와 그리고 사실적인 소재, 주제를 드러내는 많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꼬방동네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등 사실주의 계열의 영화들이 문학에서와 같이 영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네오 리얼리즘과 같이 맥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유행을 하게 됐죠. 전세계적인 현상을 몰고 온 영화사조라는 점에서 네오리얼리즘은 중요한 사조입니다.

뉴 시네마의 시작과 새로운 다큐멘타리운동

1950년대는 이제 헐리우드가 본격적으로 붕괴됩니다. 고전적 헐리우드 시스템이 파괴되고 대신에 텔레비전이 등장하게 되면서 영상예술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극장의 전유물이 아니라 '안방극장' 다시 말하면 TV 브라운관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작은 스크린과 보다 더 사실적인 다양한 영상들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새로운 영상시대로 전입하게 됩니다. 헐리우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헐리우드에 어울리지 않는 대안적인 형태의 실험적인 독립영화가 등장하게 되죠. 실험영화의 계보를 이어받는 독립영화를 '언더 그라운드 영화'라 불렀습니다. 상업오락영화계에서 시도된 흐름을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고 부르죠.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Bonnie and Clyde)>, <이지라이더 (Easy Rider)> 등의 작품이 극장가를 장악했습니다. 아메리칸 뉴 시네마가 미국의 새로운 영화 물결로 흘러 가면서 과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운드 오브 뮤직>, <스카페이스> 등 고전적인 대중영화의 흐름은 뒤바뀝니다. 독립적이고 저예산이며 대안적인 영화들이 유행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대안적이고 개혁적이고 반항적인 비주류영화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영화를 보는 시각을 다르게 형성해 주었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는 '시네마 베리떼 (Cinéma Vérité)'라는 다큐멘터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시네마 베리떼'라는 말은 '영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 '베리떼'가 '진실' 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진실을 포착한다"는 의미를 갖는 운동입니다.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 적극적인 인터뷰 방식의 다큐멘터리를 말합니다. 그전까지 다큐멘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해나가는 것이었죠. 자연관찰 다큐멘타리를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전제적으로 나레이션을 붙여가면서 국책성, 계몽성 홍보성을 강조했었죠. 반면 시네마 베리떼는 계몽, 홍보, 국책성을 다 없앱니다.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카메라기 눌러

앉아서 기록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질문거리를 갖고 들어가서 대상을 취재합니다. 인터뷰 방식의 '적극적인 사건개입식' 다큐멘터리를 말합니다.

어떠한 코멘트도 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그런 사실적이면서 박진감 있는 다큐멘터리 방식이 프랑스에서 '시네마 베리떼'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또 극영화와 다큐의 접점을 없애는 상당히 중요한 미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미국 주류영화를 보더라도 <JFK> 같이 새로운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다르덴형제가 다큐적 극영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감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혼합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화들의 원조가 되는 다큐멘터리 운동이죠.

극영화와 다큐를 혼합하는 방식을 극영화로서 시작한 집단은 이태리 네오 리얼리즘을 필두로 프랑스의 누벨 바그(Nouvelle Vague)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벨 바그는 프랑스 말로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뉴 웨이브(New Wave)라고 합니다. 장 뤽 고다르(Jean-Luc Godard), 프랑수와 트뤼포 (Francois Truffaut), 알랭 레네 (Alain Resnais)와 같은 젊은 감독들이 주도했던 프랑스의 젊은 영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적어도 196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뿐 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새로운 영화 운동입니다. 이 영화 운동은 본격적으로 현대영화로 넘어오는 사조입니다. 고전적 헐리우드 영화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영화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화사조입니다. 프랑스 누벨 바그의 영향력은 미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지 라이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와 같은 1960년대 젊은 영화들, 독립영화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누벨 바그 감독들은 미국고전에 영향을 받았고, 아메리칸 뉴 시네마 감독들은 프랑스 누벨 바그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순서적으론 프랑스가 먼저였죠.

제 3세계 및 전 세계의 뉴 시네마 영화운동

그와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중남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겠읍니다.

중남미에서는 헐리우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인 영화로서 제3세계 영화가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제3세계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중남미가 가장 먼저 영화적으로 성숙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런 순서로 각각 성숙된 형태로 나타났죠.

적어도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1970년대에는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제3세계영화의 흐름은 아주 다양하게 제3세계권에서 유행 하게 됩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약 30여년간 제3세계 국가들은 헐리우드 영화와 자국영화와의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뉴 웨이브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뉴 웨이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인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조용히 파급이 됩니다. 한국영화는 당시 뉴 웨이브 시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1960년대 고전적 양식의 영화 전성기였습니다. 1930년대, 1940년대와 같이 대량생산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의 한국영화는 1년에 약 150편 가량을 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1930, 40년대에 대략 200편~250편 제작을 했다고 본다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수를 제작 했던 셈이죠.

메이져 스튜디오 중심의 대량 생산을 했었고, 대안적인 영화의 형태로 돌입을 한 것은 적어도 1980년대 중반을 지난 다음에야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좀 뒤늦게 뉴웨이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시아의 뉴웨이브는 1950년대에 인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의 뉴시네마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양 진영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동유럽은 사회주의권이고, 서유럽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두 진영의 영화들이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둘다 헐리우드 영화의 지배적인 형태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형태라는 측면에서 뉴시네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영화가 아주 잠잠했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들을 유럽에서 제5세대 감독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문화혁명시기에 홍위병이었던 그 세대들이 자라서 30대 무렵에 만든 영화들이 세계무대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 이모우 감독의 <붉은 수수밭>(1988), 첸 카이거감독의 <황토지>(1985) 등을 필두로 해서, <국두>, <인생>, <현 위의 인생> 등 많은 영화들이 1990년대부터 현재 2010년 대에 이르기 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갖고 전세계 시장에 등장 하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르네상스

1960년대 미국 역시도 과거의 지배적인 형태의 고전적 헐리우드 양식에서 벗어나서 뉴 시네마를 유럽과 마찬가지로 구가하게 되고요. 1970년대를 경유하면서 헐리우드는 파격적이고 독립적인 대안영화에서 갑자기 방향전환을 하게 됩니다. 대중들을 다시 극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반항적인 청년문화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대중적인 헐리우드 재건 운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2의 헐리우드의 도약이라고 할까요? 헐리우드가 보다 더 상업화되고 대중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는 1980년대 테크놀러지의 급격한 성장을 영화가 반영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컴퓨터 영상과 비디오 영상을 도입하는 것이죠. 헐리우드는 그동안 잃었던 대중관객을 다시 회복합니다. 소위 헐리우드 르네상스라고 하죠. 스필버그, 루카스감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대중관객을 다시 회복하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헐리우드영화의 전세계 시장 점유와 일치하는 것인데요. 헐리우드는 기술과 상업적 시장 확보 전략에 따라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헐리우드는 더욱 오락화되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는 말 할 것도 없이 헐리우드 영화라고 합니다. 오락영화를 만들려면 다들 헐리우드로 가고 싶어 하고, 헐리우드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헐리우드는 오락영화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1960년, 1970년대까지는 전세계가 헐리우드 전통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제는 양극화된 싸움의 단계를 벗어납니다. 헐리우드 영화 자체가 하나의 '오락영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에 파급이 됩니다. 헐리우드에서 생산해낸 오락영화든 자국에서 생산한 오락영화든 이제 오락영화라는 가치 자체가 공인이 됐다고 할까요. 헐리우드 오락영화의 표준은 1930년대 이래로 다시 전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자국도 다 헐리우드 스타일로 오락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국가영화의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헐리우드 영화이고, 무엇이 자국영화인가 하는 구분은 이제 무의미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헐리우드가 전세계시장을 장악하기에 유리한 조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영화의 제작편수는 어느 나라든지 전세계적으로 보면 100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150~200편을 구가 하다가 지금은 100여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남미, 프랑스를 제외한 동, 서유럽, 한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등 모든 나라들이 대단히 심각하죠. 자국영화가 10편도 안됩니다.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현재 중국이나 일부 중동 회교 국가들 외엔 없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는 자국영화 의무 상영 횟수 보호 정책인데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마찰이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1980년대 이후로 아주 당당하게 오락영화로서 재등극을 하게 됩니다. 세계영화무대에서 전면에 위치를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종말, 확장 영화의 본격화

1990년대 이후로 더 이상 극장을 통한 배급 유통 체계가 유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사 100년을 끌어왔던 아날로그 체제가 붕괴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들이 영화 속에 파급되었다고 할까요. 새로운 방식의 영화들은 1960년대 용어로 얘기하면 확장영화 (Expanded Cinema)라는 개념일 수 있죠.

이제 본격적인 확장영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장영화는 단지 영화의 내용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관람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1990년대 이후의 용어로 얘기하면 일방향의 영화가 아니라, 쌍방향영화 (Interactive Cinema)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극장용 영화가 아니라, 인터넷 영화 혹은 컴퓨터 영화죠.

멀티미디어로서의 영화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화는 국가적인 의미를 점점 벗어나 다국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미국중심의 글로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국성, 미학의 획일성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영화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좀 더 민주적인 매체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고, 부정적 의미로는 새로운 매체의 보급 확대로 인해 영화라는 매체 자체의 개념이 혼란스러워 진다는 점이겠죠. 이렇듯 영화는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인터랙티브 시네마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영화를 통해 관객과 영화와의 상호 소통이 가능한 대화형 영화로 발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례에는 영화관이라는 형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관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인터넷 영화가 활성화 되면 관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 방향 매체가 아닌 쌍방향 매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혹은 이용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관객과는 달리 미학적인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나 TV가 기능해왔던 일방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용자가 그 내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율적인 성격의 기능으로 바뀐다고 하겠습니다.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혼돈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1895년 영화의 탄생이후 100여 년 이상을 흘러온 영화 고유의 미학이 기술이 변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방식이 변화됐다는 측면에서 영화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보는 방식이 변하면 생산의 방식도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까지 영화의 전통은 당분간 이어갈 전망입니다.